

자연재해부터 바이러스까지 세상을 바꾼 재난의 역사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재난 인류

송병건 지음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책정한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7등급인 '대형사고'였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같은 동일한 등급이다. 당시 거대 지진으로 쓰나미가 발생했고 들이친 바닷물로 발전소 전력공급이 중단됐다. 냉각수 펌프 가동 중단은 원자로 온도 상승으로 이어졌고, 원자로 압력용기가 녹아내렸다. 방사능 누출사고가 일어나자 일본 정부는 반경 20km 내 영역을 경계 구역으로 지정했다. 모든 거주민의 출입 또한 금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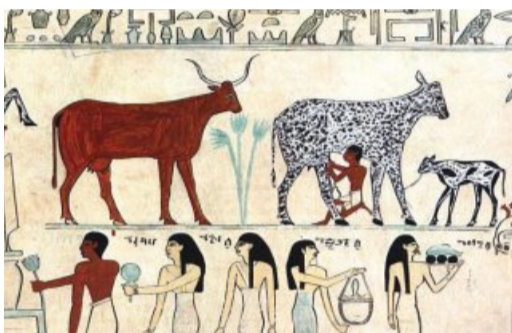
원전사고는 복합적 성격의 재난이다. 수십 만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은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방사능물질은 대기와 바다, 농산물 등을 통해 인접국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재난의 세계화나 다름없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구촌에서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수개월간의 산불로 적잖은 이재민이 발생했다. 비단 외국에서 뿐 아니라 얼마 전 광주 화정동에서는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가 일어나 소중한 인명을 잃었다.



인간은누구나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사고에서 예외일 수 없다. 예상치 못한 사고는 어느 곳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예방 교육과 대응 기술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위험은 우리 삶을 위협한다. 장구한 역사 속에서 인류는 재난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했을까? 재난에 무력했던 인류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수습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을까?

세상을 바꾼 재난의 역사를 조명한 책이 발간됐다. '산업재해의 탄생'의 저자인 성균관대 송병건 박사가 펴낸 '재난인류'는 인류의 삶과 위험의 역사에 초점을 맞췄다. 배수비오 화산 폭발부터 오늘날 코로나까지를 아우른다.



이집트 벽화. 신석기시대 정착생활과 목축업은 질병의 변이를 낳았다.

초기 인류는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 변화나 식량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위협에 직면했다. 원시시대에는 맹수의 공격, 흉수와 가뭄, 질병이 큰 위협 요인이었다. 자연물 가운데 힘 있는 대상을 토켄으로 삼겼고 금기를 설정했다. 샤먼을 통해 절대자의 뜻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화산은 인류의 기억에 강한 인상을 남겼다. 사벨건 용암과 하늘을 까맣게 뒤덮은 화산재는 두려움 그 자체다. 79년 배수비오 화산폭발로 고대도시 폼페이이 화산재에 묻혔다. 1815년 인도네시아 타보라 화산은 1만 명 사망자를 냈으며 이후 발생한 기근으로 8만 명이 아사했다.

중세를 휩쓴 최악의 재난은 흑사병이었다. 당시 5년간 유럽 인구 3분의 1이 사망했고 중국, 인도 등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대항해시대에는 감염병이 북방이었다. 유럽에서 건너온 감염병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는 치명적이었다. 천연두, 홍역, 발진푸스는 면역력을 갖지 못한 원주민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계몽의 시대는 합리성에 대한 신뢰가 최고조에 달했다. 계몽주의자들은 '이성'을 신무기 삼아 새로운 도전을 했다. 물론 재난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다. 신의 노여움으로 재난이 발생했다는 관점은 비판의 대상이 됐다. 그동안 축적된 지구와 천체에 대한 자연과학적 지식을 통해 재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견지했다.

당시 지질학적 재난 가운데 가장 흔했던 것은 지진이었다. 사람들이 느끼는 수준의 지진은 전 세계에서 해마다 100만건이 발생한다. 지진은 붕괴와 산사태, 상하수도를 파괴해 물을 오염시킨다. 유럽



79년 배수비오 화산폭발을 모티브로 한 카를 브로프프 작 '폼페이 최후의 날' (1830~1833년)

에서 기록된 가장 강력한 지진은 1775년 포르투갈 리스본 지진이였다. 당시 리스본 인구가 20만 명이었는데 10만 명이 숨졌다.

산업혁명과 도시화로 석탄이 등장했다. 석탄은 영국이 '세계의 공장'이라는 지위를 갖게 한 근인이었다. 그러나 탄광작업은 위험을 수반했다. 특히 폭약을 많이 사용하는 광업의 속성상 폭발사고가 빈번했다. 탄광노동자들은 진폐증에 시달렸고 죽기

직전까지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

교통의 발달은 재난의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공업화시대의 철도 사고는 관심을 끌었다. 사고 현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속성 때문이었다. 그 후 20세기를 거쳐 재난에 대한 지식, 대응 기술이 발전했다. 그러나 여전히 재난은 진행형이다.

<위덤하우스·2만2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영웅의 탄생

김원희 외 지음

사람들은 오늘의 사회를 영웅이 없는 시대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영웅의 의미는 무엇일까. 고전적 의미의 영웅은 현실에 부재하지만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영웅을 소환하고 있다.

사실 저마다에게 영웅은 다른 의미로 인식된다. 최근 올림픽에서 억울한 판정으로 4년의 피나는 훈련이 물거품이 됐던 선수들이 이를 극복하고 최선을 다해 결국 금메달을 목에 거는 장면을 연출했다. 사람들은 그 선수를 영웅이라고 불렀다.

영웅은 시대마다 다르게 정의됐고 다른 방식으로 탄생했다. 동서양 고전에는 어떤 영웅이 어떻게 출현했는지를 인문학으로 조명한 책이 나왔다. 서울대 증문과 김원희 교수를 비롯해 모두 10명의 연구자들이 함께 펴낸 '영웅의 탄생'은 영웅이 나타나게 되는 배경과 과정을 살펴본다.

'사기'에서는 자신이 섬긴 이를 위해 마지막까지 복수를 꿈꾸던 예양을, '춘추좌전'에서는 오랫동안 방랑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군주가 된 희중을, '일리아스'에서는 조연에 불과했던 아인아스와 트로이아 전쟁의 영웅임에도 불구하고 신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나 죽음을 면치 못했던 오딧세우스가 영웅으로 불리게 된 연유를 풀어낸다.

우리나라의 영웅 이야기도 흥미롭다. 의적에서 민중의 영웅으로 변모한 '홍길동전'의 홍길동, 조선 인조 때의 명장인 '임경업전'의 임경업 등의 이야기가 나온다.

저자는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고 말한다. 그러나 "여기서의 시대는 영웅이 살았던 시대와 꼭 같은 시대는 아닐 수 있다. 임경업처럼 영웅화 과정은 사후 반세기가 지나서 이루어지기도 하며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망과 영원을 담아 영웅을 직접 만들어 내는 작업을 통해 완성되기도 한다"고 설명한다.



<해화동·1만6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아트만두의 목표는 방구(防口)다

아트만두 지음

그동안 한국에서는 정치적 이슈를 다룬 시사 캐리커처 작가는 없었다. 최근 시사 캐리커처 모음집 '아트만두의 목표는 방구(防口)다'가 출간됐다. YTN 저녁 종합뉴스 프로그램 '뉴스Q'를 통해 시사 캐리커처 작가로 공식 데뷔했던 아트만두가 저자다. 그가 이번에 펴낸 '아트만두의 목표는 방구(防口)다'는 제목부터 이색적이다. '회사원'과 '예술가'라는 두 정체성으로 살다가 지난 2011년 '월급쟁이'(Salaried man)와 '예술가'(Artist)를 합쳐 '샐라티스트'(Salartist)라는 용어를 만들었다.

막을 방(防), 입 구(口)는 말 그대로 입을 틀어막는다는 뜻을 담았다. 누군가 입을 막으려 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려 진실을 은폐한다는 의미가 전체에 있다. 아트만두는 독자들을 웃게 만드는 맛깔난 글솜씨와 캐리커처로 선보인다.

책은 크게 두 분야로 나뉜다. 하나는 큰 이슈가 됐던 정치인을 비롯해 고위직 공무원과 종교인을 비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각계에서 의미있는 활동을 펼쳐온 이들을 다룬다. 사회의 현실을 비꼬는 저자의 감각은 시사 문제에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는 통쾌함을 선사한다.

가장 눈길을 끄는 작품은 '역사는 흐른다'다.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을 패러디한 이 작품은 이승만부터 김기춘에 이르기까지 '한국을 빛나게 하지 못한 인물들'을 다루고 있다.

또한 여신도들의 간을 보는 '뻥스목사님', 하나님을 헐뜯으신 '공갈목사님', 순교까지 강행하겠다는 '공갈목사님' 등의 이야기는 폭소를 불러일으킨다. 물론 그 폭소에는 페이스소와 시대의 모습이 담겨 있다.



<한길사·2만2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더현대 서울 인사이트

김난도 외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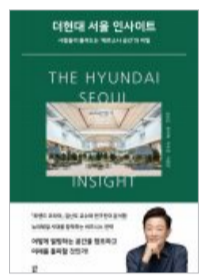
지난해 2월 오픈한 백화점 '더현대 서울'은 백화점 불모지인 여의도에 루이비통 등 3대 명품이라고 불리는 세 매장이 없는 채로 문을 열었다. 당시만 해도 흥행을 예측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한 달 만에 매출 1000억 원, 출점 첫 해에 6637억 원을 달성하면서 2022년 현재 목표치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유는 뭘까.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의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 김난도 교수와 연구진은 책 '더현대 서울 인사이트'를 통해 더현대 서울의 성공 요인을 분석한다. 부제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페르소나 공간'의 비밀'이다. 페르소나 공간이란 공간이 이용자의 페르소나에 부합하는 개인적 취향, 흥미, 가치관, 라이프스타일 등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기획된 공간이다.

저자는 더현대 서울은 단지 더 멋진 공간을 보여줬다고보다는 페르소나 공간을 통해 전통적인 소매의 고정관념을 깨는 새로운 장르를 열며, 미래 유통공간이 가져야 할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설명한다.

책은 '아이덴티티: 전에 없던 새로운', '공간디자인: 환상 그 너머', '머천다이징: 오직 거기에서만', '커뮤니케이션: 취향으로 소통하라', '리테일테크: 공간, 기술을 입다' 등 5개 파트로 구성됐으며 대한민국 대표 오프라인 공간이 된 더현대 서울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온라인 플랫폼에 반격할 방안을 제시한다.

저자는 "오직 트렌디한 것이 살아남는다"며 "뉴리테일 시대를 선도하려면 전에 없던 새로운 환상 그 너머의 오직 거기에만 존재하는 취향으로 소통하며 기술을 일러 '페르소나 공간'으로 진화하라"고 전한다.



<다산북스·1만8000원 /전재제 기자 ej6621@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